

이곳 한빛사랑나눔터가 이제 우리집입니다.



은 약 1년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천만원정도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도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프로샤의 치료가 끝날때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 병실에 환아 부모님께 이곳 한빛사랑나눔터(소아암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장에 퇴원을 하면 월세를 얻어야 했는데 어떻게 월세를 얻어야 할지 어디에 마련해야 할지 먹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가족은 아버지(37세) 어머니(26세) 그리고 프로샤(만3세) 이렇게 3식구입니다. 2012년 12월 24일 복통을 호소한 아들 프로샤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 결과 종양이 보인다며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12월 말부터 1월 신정까지 약 2주간 긴 연휴로 병원도 정상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프로샤의 진료를 위해서는 모스크바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요트항해사로 일 하면서 러시아와 부산을 오가는 적이 많아 한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샤는 응급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 급하게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예약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급한 의료비는 그동안 저축한 돈과 친척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

이곳 쉼터를 알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곳 쉼터가 좋은 이유는 첫째 병원이 가깝고 두번째로는 소아암 환아만 있으니 위생관리 및 기타 병원수칙과 동일하여 아이가 퇴원한 이후에도 잘 지낼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무엇보다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먹고 자는 것 모두가 다 해결되니 참 좋습니다. 한국 음식은 모두 맛있습니니다. 만두, 불고기 김치찌개, 닭볶음탕 등 매운 것도 맛있습니니다. 생활하는 것도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니다.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니다.

오늘부터 프로샤는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척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치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한빛사랑나눔터는 이제 우리집입니다. 우리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소아암 NGO 한빛 소식

1. 사별자 모임 나들이

지난 2월 2월 15-16일에는 한빛사랑나눔터에서 매일 자원 봉사활동으로 수고해주시는 사별자부모모임 회원분들과 겨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벗삼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매일 소아암 환아를 위한 생일잔치와 한빛사랑나눔터의 굵직 굵직한 행사때마다 한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내일 같이 열심히 활동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번 겨울 여행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사회 개최

● 2013년 2월 소아암 NGO 한빛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 한해의 사업을 평가하고 2013년 보다 발전적인 '소아암 NGO 한빛'의 운영을 위한 계획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소아암 NGO 한빛'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함께 참여해주시는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아주 특별한 여행 - 제주도 가족 여행 소개 및 후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와 가족에게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힘겨운 치료과정을 환아는 물론 가족과 함께 잘 극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2013년 처음으로 8월 20일 - 23일 제주도 가족 여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 | |
|---|--------------------------------------|
| 이사진 회장 _ 박홍이 교수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명예교수) | 이사 _ 이규현 목사 |
| 이사 _ 김병수 교수 (前 연세대학교 총장) | 배명자 권사 |
| 김현숙 교수 (연세대학교 연암신학대학원) | 민태희 회장 (승희 장학문화재단) |
| 유철주 교수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소아과) | 정향숙 회장 (한빛사랑회) |
| 유영권 교수 (연세대학교 연암신학대학원) | 유기성 원목실장 |
| 김경희 간호 팀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 감사 _ 주인기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
| 윤정숙 교수 (연세대학교 생활환경 대학 주거환경개신학과) | 홍보 _ 이승환 팀장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팀장) |
| 서호석 목사 (창천교회 담임목사) | |

한빛사랑나눔터 이야기

◎ 사랑 가득 담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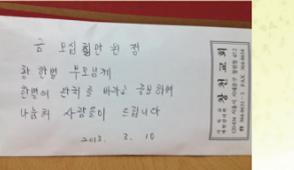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모자입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한빛사랑나눔터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주시고 귀한 메시지까지 손수 적어주신 예쁜 모자와 옷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볼나들이 준비 완료입니다~ 왠지 병원가는 발걸음마저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비닐 후원

김장에서부터 이불 정리, 쓰레기 수거, 식자재 정리 및 보관 등등 비닐봉투의 쓰임새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작은 비닐봉투에서부터 큰 비닐봉투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후원해주신 수정비닐봉투 사장님 감사합니다.

◎ 창천교회 지원

창천교회에서는 음악회와 청년부에서 직접 마련한 바자회를 통해 소아암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10여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소아암 아동을 위해 물심양면 함께 해주시는 창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해주신 후원금은 소아암 환아 황00아동과 한빛사랑나눔터 운영을 위해 귀히 사용하겠습니다.



◎ 미니 도서관



우리만의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지원으로 초등학교 1학년-6학년까지 필수도서를 마련했습니다. 한빛사랑나눔터 2층에 자그마한 미니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공부할때는 물론이고 엄마와 함께 즐겁게 읽을 책이 많이 생겨서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미니 도서관 구경하러 오세요~

◎ 설맞이 풍경

올해 설날을 풍성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함께 설날을 한빛사랑나눔터에서 보냈습니다. 함께 설 음식도 나누어 먹고 아이들과 함께 떡국도 먹으며 2013년 더욱 더 건강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늘 수고로 애써주시는 이규현 목사님과 배길선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설을 풍성하게 보낼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현대차 정몽구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